

추수 감사절의 기원: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성경말씀: 시136:1-25

매해 11월 넷째 주 미국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명절,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다. 교회가 각자가 알아서 정하면 된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안 지키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옳다.

마침 이번 주일이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 미국 성도들도 있으므로 이 제목으로 설교한다. < >

절기가 아니라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추수감사를 했는가?

그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있다.

펜앤드마크, 여러 가지 좋은 사실

[황승연 칼럼]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나?>,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11월 네 번째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다. 이 날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교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이 날에는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안부를 확인하고 칠면조(터키)구이 같은 음식을 해먹는다.

이 명절의 기원: 1620년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미국의 북동부의 해안가에 도착한 청교도 순례자(Pilgrims)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이주한 지 3년만인 1623년에 처음으로 넉넉한 추수를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작은 잔치를 국가 명절로 제정한 것은 240년 후인 1863년 링컨 대통령 때의 일이다.

추수감사절을 만든 순례자들과 그들의 지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은 그들이 이주한 지 300년 후인 20세기 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등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번영은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이러한 미국의 문화를 본받았던 서방세계의 국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순례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했었나?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두 달 넘게 항해를 하여 신대륙 미국으로 향한 '순례자 조상(Pilgrims fathers)'이라고 불리는 102명은,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의 나날을 보냈다. (선원 30명)그 인원이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에는 배는 너무 작고 좁았다. 화재 염려로 불을 피울 수도 없었고 요리를 할 수도 없었다. 심한 뱃멀미와 추위 때문에 항해 중 죽은 사람도 있었다. 폭풍우 때문에 목적지로 정했던 버지니아에 도착하지 못하고 66일 만인 11월 21일 미국 북쪽의 해안가(지금의 플리머스 락(Plymouth Rock))에 도착했다.

상륙하자 바로 추위가 찾아왔다. 주거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겨울을 맞아,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감기와 폐렴으로 이듬해 봄까지 약 절반이 죽었다. 30여 명의 선원들은 영국으로 돌아갔다. 살아남은 사람들 50여 명 중 절반은 어린이들이었다. 굶주림은 그들의 굶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음식을 훔치게 만들었다. 처음으로 선출한 지도자도 이 때 죽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 1588-1657)가 두 번째 지도자로 뽑혀 이들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1620년부터 1646년까지 이들의 정착 과정과 삶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플리머스 농장에 관하여>(Of Plymouth Plantation)라는 책을 남겼다. 그는 책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 받았던 정착 초기에,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라고 쓰고 있다.

순례자들의 고향에서는 공동경작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고향의 풍습에 따라 지도자의 통솔 하에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생활을 하였다. 수확한 것은 공동의 장소에 모아놓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였다. 그들은 사유물을 공동체의 공동재산으로 하면 모두 행복하고 번성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공동생산 방식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젊고 건장한 남자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남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반대했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양의 식량과 옷을

나눠 갖는 것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공동체 생활에서 많은 혼란과 불만족이 생겼다. 공동생산 하에서 자손을 낳는 것조차도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미국 북동부의 혹한 속에서 세 번의 겨울을 나는 동안 굶어죽을 위기를 겨우 견디어 내었다.

1623년 봄, 브래드포드는 실험을 했다. 봄에 작물을 심을 때 가정마다 약간의 땅을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 알아서 곡식을 길러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식량으로 남겨둔 씨앗까지도 먹지 않고 땅에다 심었다. 그들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농작물을 심었고 모두가 부지런히 일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도 아이를 업고 들판으로 나갔다. 늙거나 아프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기꺼이 밭에 나가 자신들의 노동의 결실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 해에는 특히 봄 가뭄도 심했고 여름에 큰 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극심한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사유재산 개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겨울을 지내고 남은 식량을 확보하였고 또 이 잉여식량으로 원주민들과 짐승의 가죽 등 다른 필요한 것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브래드포드는 그의 책에 이렇게 썼다. “이날 이후 어떤 궁핍과 기근도 우리들 가운데 머무르지 못했다.”

1623년 순례자 조상들은 평등한 공동체의 길을 택하지 않고 책임을 갖는 개인의 길을 택했다. 노예를 길을 택하지 않고 자유인의 길을 택했다. 그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가 만들었고 그가 이끌었던 순례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던 이 ‘개인의 책임’과 ‘인센티브제도’는 거의 4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유롭고,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미국의 건국정신이고 미국적 가치관의 본질이 되었다.

그들이 미국을 향해 폭풍우와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을 이겨내며 항해하던 중 성도들과 불신자들 간의 갈등도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지도자를 뽑았다. 또 도착 후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규칙인 ‘메이플라워 서약서(Mayflower Compact)’을 만들어 서명했다. 이 서약서는 훗날 미국 연방헌법을 제정할 때 모델이 되었다. 함께 살아남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사회계약이었다. 비록 41명이 서명했지만 법치의 기본을 민주적으로 세운 것이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1620년부터 1647년까지 일어났던 이러한 전 과정을 브래드포드는 그의 책 <플리머스 농장에 관해>(Of Plymouth Plantation)에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기록은 미국이 어떤 난관을 이겨내고 어떻게 세워졌으며,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던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었다. 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그들의 구원: 하나님에 의한 영적/육적 구원
2. 개인의 자유 사유 재산: 풍요로움
3. 법치

약 6,000년 이 땅에 최초 인류가 창조된 지 5,600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이런 가치들이 지구에서 최초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 미국은 독립 전쟁, 건국, 이것들을 토대로 한 자유 헌법,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 보호, 성경 보호, 최강의 국가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다. 구현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시편 136편

저지를 알 수 없다. 총 26절, 원래 감사하라는 1-3, 26절에 4번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모든 절에 들어가 있다.

4-25절은 그분께,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의 구조

그러니까 실제로 1-26절 모두에는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이다.

긍휼 mercy: 불쌍히 여기는 것

라이프 사전: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시25:6). 불쌍히 여겨 동정함(pity).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눅1:54).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하뫼'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뜻한 정을 의미한다(시103:13; 사13:18).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세 역시 부모 형제 사이의 애뜻한 정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다.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이 역시 '긍휼'로 번역되는데,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인 것이다. 이 긍휼의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엡 2:4; 딤후 3:5-6). 그러기에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는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이다(롬 9:23; 뱀전 2:10).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마18:33; 골 3:12).

예수님의 말씀: 나는 희생 예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마9:13).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총 41회

대상16:34(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성막에 가져다 놓고 감사하면서 시편을 낭독함), 대하5:13, 7:3-6, 솔로몬의 성전 봉헌, 대하20:21, 여호사밧의 찬양

스3:11 예루살렘에서 예배 회복, 시118:1-4, 메시아 시편, 시136, 렘33:11,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1.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해야 한다(1-3). 사도 바울의 표현(고전8:5-6).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잡신이다. 그들의 대장은 마귀이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주들의 주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왜 그분이 선하시므로(1).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속성, 좋은 분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부모와 같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2.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심에 감사해야 한다(4-9). 시19,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될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을 생각해 보라.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 무에서 유로 6일 만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렘10:11-12

이런 능력이 있으시므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

힘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보기 바란다. 시8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감사하기 바란다.

3. 여호와 하나님이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해방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해야 한다(10-15).

이스라엘 백성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출자 모세를 보내 구출하셨다. 이들의 구원은 오직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통해, 파라오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어린양의 피를 문의 기둥과 인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 날 이집트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피를 바른 사람의 집에는 죽음이 없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어린양의 피로 된다. 뱀전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홍해를 가르신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영원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감사드린다.

4. 40년 간 광야 생활, 주변의 왕들 정복, 유산으로 줌(16-22)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많은 위험, 이교도들, 유명한 왕들, 거인들, 시혼(19), 옥(거인, 20, 신 3:11), 그의 침대는 쇠 침대, 길이가 9큐빗, 너비가 4큐빗(4미터, 1.8미터)

40년간 광야를 지날 때 옷과 신이 낡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신8:4).

만나와 메추라기, 시원한 물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자기들이 파지 않은 우물, 개간하지 않은 땅, 짓지 않은 집 소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다. 거기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가 가증하여 그 땅이 그들을 토해 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처리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지손에게 영원히 유산으로 주셨다. AD 70년 이후 온 세상에서 유랑 생활 하다가 1948년 5월 국가 건설, 거기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5. 한 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처지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23).

눅15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같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원수들에게서 구출해 주셨다(24). 먹을 것을 주신다(25).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지켜주셨다.

6.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대한민국과 교회

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살펴보았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펴보고 감사드리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땅에 퍼짐, 율해는 단기 4353년, 바벨 탑 사건이 생기던 시기와 비슷하다.

그 이후의 일단의 무리가 한반도 땅에 정착하며 여러 나라를 거치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설

1948년 8월 15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국가

조선 시대 수많은 노비, 자유가 없다. 사유 재산이 없다. 왕정 독재 시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고종 시대 외국인들 세상에 이렇게 후진국이 있는가?

나라의 힘이 없고 지도자들이 없어서 결국 1910년 일본의 식민지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 동안 남의 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생활

그럼에도 1880년대 이후 미국 선교사들, 기독교가 들어와 교육, 의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국민들 계몽, 미신 타파, 복지, 위생

1948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순식간에 해방됨,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비천한 처지에 잇는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23)

하나님은 그 동안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 필그림들의 정신: 개인의 자유, 사유 재산, 법치 국가를 이 땅에 구현하게 해 주심

7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라. 유일한 차이: 체제, 하나님의 체제, 마귀의 체제

1950년 6.25 전쟁,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다(24). 이번에도 미국이 주도하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등을 통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25). 그 결과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다.

추수감사절에 바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천한 처지에 잇는 이 민족을 값없이 구출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 국가에 살며 마음껏 믿음 생활하고 경제생활하며 행복을 누리게 해 주셨다.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26),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하루쯤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

결론

우리를 이렇게 해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황승연 교수의 절말 소개

우리나라는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인가? 우리나라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지키고 확산시키고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가?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담보할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고민할 지적 능력이 과연 있으며, 성숙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자유로운 개인'과 400년 전 브래드포드가 제안했던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문명국가들은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국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자유, 민주, 시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하여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에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주자학 기반의 가산제국가 체제 하에서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백성들의 노비근성이 곰팡이 균처럼 남아 있다가 다시 살아나, 인간의 욕망은 악이고 청빈은 선이라 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악이고 평등은 선이라 역지를 부리며 기업인들의 이익추구를 악으로 취급하는 노조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청빈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은 뒤로는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욕망을 다 채우는 위선의 극치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여 돈을 버는 것을 천한 것으로 보는 나라들은 망했고, 경제활동이 신성한 가치를 지닌 것이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장려하는 나라들은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좌, 우를 막론하고 선거 때를 위해 표계산에 바쁘다. 그러기에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며 복지예산을 살포하려는 때표 시도에 매진하고 있다.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모른 체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갔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아직은 되돌아갈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건국한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보통신기술산업 국가가 된 능력을 갖지 않았던가?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처럼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쌓아온 자유와 번영 모두를 잃게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지금의 우리의 번영은 우리 부모세대와 선배 세대의 노력으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성공의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번영을 죄악시 하고 저주하며, 위선과 거짓과 굴종이 판을 쳤던 노비들의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이유로?

미국의 자유와 번영은 운이 좋아서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니다. 순례자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의지와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은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너무 쉽게 얻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번영이냐, 몰락이냐? 우리들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번영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공훈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바르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바이블 빌리버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훈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한다.